

제목: 불의한 청지기 **unrighteous manager**

누가복음 **St. Luke 16:1-9** 절

1.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Now He was also saying to the disciples, "There was a rich man who had a manager, and this manager was reported to him as squandering his possessions.**

2.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찜이뇨 네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사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And he called him and said to him, 'What is this I hear about you? Give an accounting of your management, for you can no longer be manager.'**

3.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 먹자니 부끄럽구나 "**The manager said to himself, 'What shall I do, since my master is taking the management away from me? I am not strong enough to dig; I am ashamed to beg.**

4.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I know what I shall do, so that when I am removed from the management people will welcome me into their homes.**

5.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낱낱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졌느뇨 "**And he summoned each one of his master's debtors, and he began saying to the first, 'How much do you owe my master?'**

6. 말하되 기름 백 말이니이다 가로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오십이라 쓰라 하고 "**And he said, 'A hundred measures of oil.' And he said to him, 'Take your bill, and sit down quickly and write fifty.'**

7. 또 다른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졌느뇨 가로되 밀 백 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팔십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Then he said to another, 'And how much do you owe?' And he said, 'A hundred measures of wheat.' He said to him, 'Take your bill, and write eighty.'**

8.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빚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And his master praised the unrighteous manager because he had acted shrewdly; for the sons of this age are more shrewd in relation to their own kind than the sons of light.**

9.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And I say to you, make friends for yourselves by means of the wealth of unrighteousness, so that when it fails, they will receive you into the eternal dwellings**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제자의 삶에 대하여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1 절). 마지막 시대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오는 것을 느끼는 시대적 마지막 세대를 말할 수 있고, 다른 하나는 개인적으로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느끼는 마지막 순간을 말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라고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이곳에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부자”라는 단어와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부자의 재산을 관리하는 청지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청지기를 직원으로 임명했고, 청지기는 부자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어어야 하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부자에게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들렸습니다(1 절). 어떻게 허비를 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본문에서 날 수 있는 내용으로는 주인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시간을 허비한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그리고 한 달란트의 비유에서 마치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의 변명과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즉 주인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스스로의 생각 대로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주인은 그를 불러 마지막 정리할 시간을 주었습니다(2 절 “네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사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이것은 청지기에게 큰 배려였습니다. 이 청지기를 아끼는 주인의 마음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이 주인은 청지기에게 최고의 대우를 해 주었고 마지막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던 사랑스러운 주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청지기는 자기 자신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3 절). 이제 더 이상 이 주인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것을 알게 된 청지기는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잘 돌아 보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을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땅을 파는 노동을 힘이 없어 할 수 없고, 거지처럼 빌어 먹자니 부끄러운 것을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깊이 돌아 볼 때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주인의 것을 가지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인의 것입니다. 주인은 부자요 그 주인의 것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직 청지기로 남아 있는 자기의 권한이었습니다. 그렇게 주인의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면 그 사람들이 결국 주인에게 감사를 하겠지만 자기 자신에게도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 것입니다(4 절)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낱낱이 불러다가 그 빚을 줄여 주었습니다. 빚에 부담을 느끼는 자들에게는 큰 기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즉 무거운 짐을 덜어 준 것입니다(5-7 절). 청지기는 아직까지 주인의 청지기였습니다. 그러므로 청지기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주인의 권한으로 사람들을 기쁘게 해 주었습니다. 주인의 것으로 자기가 탕감해 주거나 줄여 주는 것은 청지기의 정직한 권한이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을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일에 사용할 때 주인이 좋아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8 절). 사람들을 기쁘게 해 주는 것이 주인의 뜻이었습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려가는 사람은 무엇인가 큰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돈을 빌렸을 때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돈을 빌려 주는 은행과 돈을 빌려 큰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가슴이 부풀어 있는 사람에게 기쁨이 되는 거래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도 빌려간 사람이 운명을 잘 못하여 그 채무를 갚기도 어려울 때 죽고 싶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것이 채무자입니다. 주인이 고용한 청지기는 채무자의 어려운 문제 등을 도와 줘서 처음 돈을 받았을 때의 기쁨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인의 뜻이었다는 것을 8 절에서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주인의 뜻을 잘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곳의 주인은 정직하고 좋은 주인입니다. 그리고 미리 “부자”라고 하는 말에서 물질의 만고 적음에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을 미리 예고한 내용입니다. 이 부자 주인의 뜻은 자기의 물질을 빌려간 사람들이 기뻐하고 그 기쁨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에 있었습니다.

본문의 **8** 절의 내용을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는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라고 하셨습니다. 청지기는 “옳지 않는 청지기”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는 일은 “지혜 있게 하였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곳에서 옳지 않는 청지기의 의미는 “문서(증서)를 속인 것입니다”(**6** 절). 주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을 위해서입니다. 이것을 가지고도 청지기는 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에게는 “부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부자는 세상적인 갈취하는 부자가 아니라 나누어 주고도 남음이 있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부자라는 것입니다. 이 부자의 목적은 자기의 것을 가지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행복해 하는 것이었습니다. 기쁨을 갖고 주인에게 감사를 돌리는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주인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 불의한 청지기가 즉 옳지 않는 방법으로 했지만 주인의 것을 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주인에게 감사하도록 했고 그 기쁨이 주인의 기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을 예수님께서는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라고 하셨습니다(**8** 절).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시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 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라고 하셨습니다. 이곳에서 “이 시대의 아들들”과 “빛의 아들들”을 알아야 합니다. 이 시대 즉 구약의 율법시대가 아닌 은혜의 예수님의 시대의 아들들은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도들 중에서도 오직 예수님의 청지기로 살아가는 사역자들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시대의 빛의 아들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선택 받아 내려온 빛의 아들 즉 유대인들을 직역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당연히 구원 받았다고 믿는 “빛의 아들들” 즉 유대인들보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차지한다고 하는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자녀들이 된 “이 시대의 아이들”이 구원에 대하여 더 지혜롭다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권고하신 말씀으로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여 ━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라고 하신 내용을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 내용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또는 마지막 인생을 살아가는 간절한 부탁과도 같은 권면입니다. 이곳에서 “불의의 재물”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재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재물은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재물을 자기 것처럼 사용하고 있는 것이 불의의 재물입니다. 자기 은행에 있는 돈도 자기 집 금고에 들어 있는 돈 그리고 자기가 입고 있는 옷까지도 자기의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모든 재료와 근본은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자기 것처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재물로 친구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없어질 때”라고 하신 말씀은 이 세상을 떠날 때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시대적 종말이든 개인적 종말이든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새로운 세계가 다시 열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곳은 영원한 천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라고 하신 말씀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았던 그것 때문에 영원한 처소 즉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곳에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에 대하여 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곳에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은 반드시 복음을 동반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에 다른 종교인들이나 자선 사업가 또는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자선 사업과 복음 사업은 근본부터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5** 장 **31** 절부터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재림 때 천국과 지옥인의 분리가

되는 행위에 대한 것은 오직 복음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40** 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한 내용에서 “여기 내 형제 중에”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크리스챤 즉 기독교인이며 예수님의 복음으로 한 형제 자매가 된 천국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인들의 자선은 반드시 복음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없는 자선은 우리 예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한” 불의한 청지기의 일은 오직 복음과 함께 했던 천국의 사역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것으로 사람을 기쁘게 하면 그를 인하여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는 본문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불의한 청지기의 교훈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이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것은 우리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1** 절 “어떤 부자에게”)

1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2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3 불의한 청지기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아름답게 스셨습니다

둘째, 불의한 청지기는 언제가 마지막이 있다는 것입니다(**2** 절)

1 인생에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2 마지막 이후에는 또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9** 절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3 절에 마지막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셋째, 불의한 청지기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했다는 것입니다(**5-7** 절)

1 하나님의 뜻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2 하나님의 뜻은 사람으로 하여금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하는 일입니다

3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